



광주 시장 누가 되어야 하나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고대 중국에 자산(子産)이란 사람이 있었다. 춘추시대 정(鄭) 나라의 재상(宰相)을 지내며 개혁 정치의 물꼬를 튼 이다.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너그러운이고, 하나는 엄격함이다.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이 관대한 정치로 백성들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는 정치를 물과 불에 비유하기도 했다. “불이 활활 타오르면 백성들은 겁을 먹는다. 물은 성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 관대한 통치술이란 물과 같이 효과를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엄격한 정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자산은 너그러운(온건)과 엄격함(강경)을 적절히 구사하며 깨끗한 정치를 했다. 훗날 궁정의 쿠데타가 일어나 그를 죽이려 하자 누군가 나서더니, “자산은 어진 사람으로 자산 없는 정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다”면서 말릴 정도였다고 한다.

과연 그러했으니, 자산은 자신의 수레를 보내 백성들이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줄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다. 공자(孔子)가 ‘논어(論語)’에서 ‘자산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을 놓고 맹자의 시각은 달랐다. ‘맹자(孟子)’ 이루면(離婁編)에 그의 일화가 전해진다. 자산이 길을 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됐는데 물이 매우 차가운데도 다리가 없어, 백성들이 맨발로 바지를 걷은 채 건너고 있었다. 이에 자산은 자신의 수레로 백성들을 한 명씩 건널 수 있게 해주었다.

개울에 다리를 놓아 주듯이

그러나 이 소문을 들은 맹자는 별로 마뜩지 않았던 모양이다. “자산은 은혜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치를 하는 도리는 알지 못했다. 어떻게 사람마다 건건이 자신의 수레로 건너게 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위정자가 매 사람마다 기쁘게 해 주려 한다면 매일매일 그 일만 하여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맹자는 관용(官用) 수레로 일부 백성의 편리를 봐주는 것은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다. 그는 한가로운 수레로 개울을 건너주고 있을 시간에 관청에 들어가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를 독려해 다리를 놓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최근 자산에 관한 이런 글을 보면서, 누가 되는 광주 시장도 그러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일자리 창출만 해도 그렇다. 시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실업자들을 불러 자신이 아는 기업에 취직을 시켜 준다면, 참으로 어진 시장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모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임기가 4년 아니라 10년이라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개울을 건너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아 주듯이,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 아니겠는가. 또한 그런 일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최근에는 광주로 오겠다는 기업이 많아져 우리를 기쁘게 한다.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중에는 ‘누가 광주 시장이 되어야 하나?’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스펙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광주의 정체성을 말한다. 정당이야 어차피 민주당 집안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인물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인물론처럼 허망한 것도 없다.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물’이라 함은 학력이나 경력, 그러니까 ‘스펙’(spec)과 하등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요즘 공공기관 등에서 프로필을 다 가린 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서이겠지만, ‘스펙’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서 또는 장·차관을 지냈다 해서 응당 ‘인물’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위험하다.

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그가 지향해 온 삶의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출세 지향의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 온 이에게 광주를 맡길 수는 없다. 창조적인 발상을 기대할 수 없는, 관료주의에 젖은 이에게 광주를 맡겨서도 안 된다.

고민 말고 딱 두 가지만 보자

광주의 정체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흔히 광주를 ‘민주·인권의 도시’라고 말한다. 이러한 광주의 정체성 혹은 이미지에 부합하는 이가 광주 시장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광주 시장의 조건으로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시민운동가 출신이 낫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어도 광주 시장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5·18 당시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하늘을 우러러 큰 부끄러움은 없는 자여야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지극히 가까운 낙후에서 벗어나, 우리 후손들에게 ‘잠자는 광주’를 물려줄 수 있는 인물이여야 한다. 그럴

다면 다시 얘기가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인물이 광주 시장을 맡는 게 당연하다. 일자리 창출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다. 차트에 온갖 통계 수치를 써 넣고, 업무 보고에만 신경 쓰는 탁상용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예전엔 그럴싸한 차트를 만들어 정산수수로 보고만 잘하는 공무원들이 출세하던 시절도 있었다.

과연 차트 만드는 것은 과거 군인들이나 관료들이 잘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는가.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야 한다. 청년들이 다시는 ‘헬조선’을 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광주 시장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자명했다. ‘오늘의 광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내일의 광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가? 광주 시장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딱 두 가지만 살펴보자. 그 하나, 지나온 삶의 행로에서 크게 부끄러움이 없는 ‘광주 정신’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그 둘, 보다 많은 기업을 광주에 유치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인물,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오르는가?

문 대통령, 내일 北 김여정과 오찬

개막식 전 리셉션엔 김영남 상임위원장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북한 대표단은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계획이며, 다만 개막식에 앞서 문 대통령 주최로 열리는 리셉션에는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여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만 참석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 최후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꾸려진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서울 일정으로 9일 오후 1시 30분 전용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방남한다.

이날 접견 및 오찬 회동에서 김여정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접견·오찬에는 김 상임위원장과 김여정의 참석이 확정적이지만, 또다른 단원인 최후·리선권 위원장도 배석할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외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협의 종료,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접견·오찬 장소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남북 간 협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하나하나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이 인천공항에서 북한 대표단을 영접한다. 북한 대표단의 이동 수단·숙소와 관련, 이 관계자는 “북측과 협의의 중이며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측이 원하는 장소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9일 접견 이외에도 김여정을 만날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까지 논의 중”이라며 “한 번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의 회동 명칭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전은 정상급이지만 통상적으로 접견·면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광주시청 국기계양대에서 열린 ‘한반도기 계양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현직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한반도기와 평창동계올림픽기를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평창 올림픽기·한반도기 계양

12일 ‘광주시의 날’ 2019 세계수영 홍보 행사

광주시는 8일 오전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기 및 한반도기 계양식’을 개최했다. 국기계양대에 올림픽기 등을 계양한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 계양대에는 올림픽기간이 끝나는 25일까지 태극기, 광주광역시기, 평창 동계올림픽기와 한반도기 등 4개 깃발이 나부끼게 된다.

이는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염원과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시는 평창 동계올림픽(2.9.~2.25.) 기간 중 12일을 ‘광주시의 날’로 운영,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홍보하며

광주를 알리는 다양한 전시, 공연행사를 열 예정이다. 광주시체육회와 광주빙상연맹, 광주스키협회, 광주컬링연맹 등 소속 임원과 선수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응원전도 펼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명박 전 대통령 개회식 참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이뤄낸 지구촌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야·전·담·바로 삽니다!

전국·땅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NPL 등 특수물건만 취급★

경매·투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연
• 조 선 대 : 3월 8일(목) / 주간 10시, 야간 7시
• 광주여대 : 3월 6일(화) / 주간 10시, 야간 7시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8일(목)
- 교육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6일(화)
- 교육기간 : 2018년 3월 6일(화) ~ 2018년 6월 12일(화)
-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 접수문의 :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입찰공고 제2017-23호

부동산(대지)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매각자산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277-16, 277-17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비고
토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277-16	잡종지	211	
		277-17	잡종지	126	
면적 합계				337	

2) 입찰 및 개찰일시

현장설명일	입찰 참가 등록기간	입찰(개찰)일시
2018.02.13(화) 11:00 영암캠퍼스 대학본부 308호	2018.02.13(화)~ 2018.02.20(화) 16:00 영암캠퍼스 교학처	2018.02.21(수) 14:00 영암캠퍼스 대학본부 308호

2.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1)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2) 구비서류(각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가. 개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
나. 법인/업체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현장설명회 불참자(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최고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 당일 직접투찰)

4. 기타사항

1) 문의사항 : 계약관련-총무과 김종인(041-359-6013), 물건관련-교학처 정지국(061-469-1153)
2) 자세한 사항은 새한대학교 홈페이지 구매공고 참조 (입찰공고 제2017-23호)

새한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사장